

(수서~광주간 복선전철 도촌·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-참조76)

# 수서~광주간 복선전철 도촌·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

(조우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10월 일

발의자: 조우현, 이군수, 최현백, 최종성,  
박경희, 조정식, 김윤환, 윤혜선,  
서은경, 정연화, 성해련, 김선임,  
박기범 (이상 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교통 소외지역인 도촌사거리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촌·야탑역을 신설하여 교통 복지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제안하였음.

## 2. 주요내용

- 수서~광주간 복선전철 도촌·야탑역 신설 추진
- 역 신설을 위해 종합적인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 요구

## 3. 결의문(안): 별도 붙임

## 4. 기타사항

- 이송기관: 국토교통부, 국가철도공단, 성남시청
- 붙임: 수서~광주간 복선전철 도촌·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 1부.

# 수서~광주간 복선전철 도촌·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

수서~광주간 복선전철(수광선)의 노선이 도촌사거리 일대인 야탑동, 여수동, 갈현동, 도촌동 등에 걸쳐 있는 약 6만여 명의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촌·야탑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

2030년 개통할 예정인 수서~광주간 복선전철은 수서~성남~경기 광주(19.318km)를 잇는 노선으로 심각한 사각지대인 광주·이천 방면에 붐비는 자동차 교통난 해소와 미래도시 교통환경 조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.

이 노선에 성남시에서는 2020년 5월부터 하루평균 12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인 도촌사거리 신설역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, 경유를 바라는 약 6만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1만여 명의 근로자들도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요청해 왔다.

이에 2023년 2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수서~광주선 기본계획 노선에는 성남시가 요구해온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고 빠져 있었지만 최근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과 기본설계안엔 도촌사거리 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졌다.

하지만 철도공단은 역 신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도촌사거리 일대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온 도촌·야탑역의 신설은 계획에서 제외되었다.

주민들은 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건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, 성남시에선 그동안 사업성을 대비하여 기반시설 등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장님의 공약 이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

이에 따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도촌·야탑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, 최소한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.

**하나.** 성남시는 도촌·야탑역 신설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촌동 및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,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도촌·야탑역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.

**하나.**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도촌·야탑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, 수서~광주간 복선전철의 노선에 ‘도촌·야탑역’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라.

2024. 10. .

**성 남 시 의 회**